



니자티딘(nizatidine)

요약

니자티딘은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억제하여 위산을 감소시키는 위장약이다. 위산의 과다분비로 인한 위궤양, 식도염,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.

외국어 표기	nizatidine(영어)
CAS 등록번호	76963-41-2
ATC 코드	A02BA04
분자식	$C_{12}H_{21}N_5O_2S_2$
분자량	331.453 g/mol

유의어·관련어: 위염치료제, drug for gastritis,
소화성 궤양치료제, drug for peptic ulcer drug,
역류성 식도염약, drug for reflux esophagitis,
속쓰림약, drug for heartburn, 위장약,
엑시드, Aci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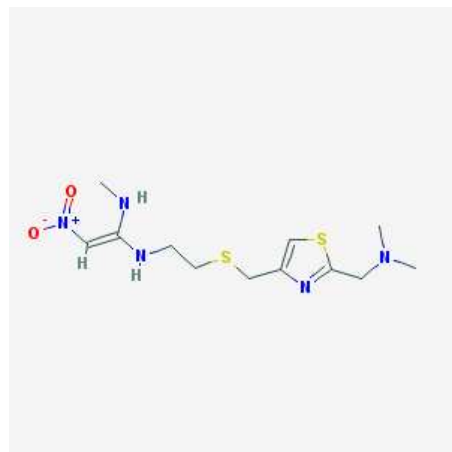


그림 1. 니자티딘의 구조식

약리작용

니자티딘(nizatidine)은 위벽세포의 히스타민^{*}-2 (Histamine-2, H2) 수용체에서 히스타민을 경쟁적으로 저해하여 위산의 분비를 억제한다.

^{*} 히스타민: 인체에서 생산되는 물질로 히스타민 수용체에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낸다. 외부 자극에 의해 분비된 히스타민은 H1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알레르기 반응(기관지 수축, 혈관 확장, 발적, 가려움증 등 유발)에 관여한다. 또한 히스타민은 위점막의 H2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여 위산의 분비를 자극한다.

효능·효과

니자티딘은 위염(gastritis), 위·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(peptic ulcer disease)의 치료와 재발 방지 및 역류성 식도염(reflux esophagitis)으로 인한 가슴쓰림(heartburn) 등에 사용된다.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낮은 용량의 제품은 위산과다, 속쓰림, 신트림 등의 증상에 사용된다. 액시드[®] 등의 제품이 있다.

용법

니자티딘은 보통 1일 2회 150 mg를 아침, 저녁(또는 1일 1회 300 mg 취침 시)에 경구 투여한다. 질병 또는 증상에 따른 투여량은 다음과 같다.

- 위궤양, 십이지장 궤양, 역류성 식도염: 위의 용량으로 4주 또는 8주간 복용
(역류성 식도염은 12주까지 가능)
- 십이지장 궤양의 재발방지: 십이지장 궤양 치료 후 1일 1회 취침 시 150 mg 복용
- 위산과다, 속쓰림: 1일 1회 75 mg

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금기

다른 히스타민 H2(histamine-2)길항제^{*}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.

* 히스타민 H2 길항제: 위벽세포의 히스타민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다. 시메티딘(cimetidine), 라니티딘(ranitidine), 파모티딘(famotidine) 등이 있다.

주의사항

- 위암 증상을 숨길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위암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투여한다.
-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감량하여 투여한다.
- 니자티딘 일부가 간에서 대사되므로 간장애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.
- 투여 시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투여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른 치료제로 전환한다.

부작용

니자티딘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.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,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.

흔한 부작용(사용자의 10% 이상에서 보고)

신경계: 두통

일반적 부작용(사용자의 1~10%에서 보고)

- 신경계: 졸음, 불안, 어지러움
- 위장관계: 변비, 설사, 구토, 복통,
- 과민반응: 두드러기, 발진, 발열
- 호흡기계(주로 어린이 경우): 기침, 코막힘, 인후염

드문 부작용(사용자의 1% 미만에서 보고)

간수치 상승, 신장애, 빈혈, 여성형 유방 등

상호작용

니자티딘과 고용량의 아스피린(3900 mg)을 함께 투여 시 혈중 아스피린의 농도가 증가된다.

소아, 청소년 사용

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.

고령자 사용

고령자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니자티딘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. 고령자는 신기능 검사를 실시한 후 투여량을 결정하고, 투여 중에도 신장기능을 면밀히 관찰한다.

임부·수유부 사용

- 임신 중의 투여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는 치료의 유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.
- 모유 중으로 이행하므로(0.1% 이하) 수유 중에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.